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 기질에 따른 차이 -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황 경 혜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 기질에 따른 차이 -

지도교수 이 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황 경 혜

황경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9년 2월



주 심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정 화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7
1. 사회적 유능감	7
2. 부모의 양육태도	14
3. 기질	19
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 및 기질 간의 관계	25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	29
2. 측정도구	29
3. 연구절차	34
4. 자료처리	35
IV. 연구결과 및 논의	36
1. 연구결과	36
2. 논의	48
V. 요약 및 결론	52
1. 요약	52
2. 결론	53
참고문헌	55
부록	66

표 목 차

<표 1>	부모양육태도의 학위 척도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30
<표 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학위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	32
<표 3>	기질 차원 척도의 학위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33
<표 4>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두집단간 사회적 유능감 평균차 검증...	36
<표 5>	아동의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 점수의 기술통계량	38
<표 6>	모-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의 이원분산분석	39
<표 7>	부-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의 이원분산분석	40
<표 8>	모-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이원 분산분석.....	42
<표 9>	부-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이원 분산분석.....	43
<표 10>	아동의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 점수의 기술통계량.....	44
<표 11>	모-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의 이원분산분석	45
<표 12>	부-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의 이원분산분석	46
<표 13>	아동의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 점수의 기술통계량.....	47

그림 목 차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16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 The role of temperament**

Gyeong-Hye Hwang

Educational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One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The other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temperament in the relationship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82 6th graders(boy, 257; girl, 233) who reside in Busan. Research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parenting scale(Park & Lee, 1990), Social competency scale for children(Wang, 2001) and 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Lee, 1994).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wo-samples t-test and Two-way ANOVA.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competency of children significantly differ according to affectionate parenting of both mother and father. That is, children who perceived their parent's rearing attitude as affectionate showed higher interpersonal adjust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popularity. Second, all the temperament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did

no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y of children. Possible explanation for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tentative conclusion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were made.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escribed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was suggested.

key word: parenting attitude,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사회적 목표를 긍정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 주어진 환경과 끊임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현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일생동안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사회적 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능력을 사회적 유능감이라 한다(김미화, 1997).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상호 작용 내에서 대인 관계의 목적을 획득하는 능력이며, 이는 인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여 사회화 되어 가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영아기와 유아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근본이 되므로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윤은수, 1994).

이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연구 노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는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변인을 밝히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증진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 중 전자와 관련이 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는 다양

한 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동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험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박주희, 2001). Hartup(1983)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아동이 사회적·비사회적 환경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며, 다른 사회적 관계의 시초가 된다고 한다(이희영, 2008; 재인용).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부모의 양육방식의 관련성을 검토한 많은 연구(김정아, 1990; 김재희·박경란, 1998; 김현미·도현심, 2004; 박범실, 1987; 손승희·이은혜, 2004; 우정희·이미숙·전춘애, 2003; 이진숙·한지현, 2004; 최정미, 2002)가 수행되었고, 연구 결과는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변인간의 구체적인 관계 양상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박범실(1987)은 3세 이후의 취학 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행동의 다섯 가지 차원(즉, 적극적 참여,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성)과 사회적 능력의 다섯 가지 차원(즉,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비협조성, 협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활동성, 비협조성 및 협력성과, 규제는 사회적 활동성 및 협력성과, 반응성은 과민성 및 비협조성과, 합리적 지도는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및 협력성과 마지막으로 친밀성은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비협조성 및 협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정아(1990)의 연구는 박범실(1987)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적극적 참여는 비

협조성과는 상관이 없었고, 규제는 모든 변인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과민성과 비협조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반응성은 사회적 활동성과만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합리적 지도는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및 협조성과는 정적상관을 비협조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친밀성은 과민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 분야 선행연구의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에 주목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명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양육이나 아동 발달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질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가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있어 기질에 따른 차이는 몇몇 학자들(Belsky, 1997; Bronfenbrenner & Morris, 1998; Gallagher, 2002; Thomas & Chess, 1977)에 의해 이론적 틀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아동 발달은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이들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더 잘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국내외의 연구자들(천희영, 1993; 최영희, 2004; Colder, Lochman & Wells, 1997; Lengua, Wolchik, Sandler & West, 2000)이 아동 발달에 있어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의 상호 작용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연구 결과는 대체로 이론적 가정과 일치하게 기질에 따라 부모 양육 행동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가 달리 나타났다.

예를 들어, Lengua 등(2000)은 이혼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적 태도는 긍정적 정서성(기질의 한 차원)이 낮은 아동에게 더 영향력이 있고, 불일치한 훈육은 충동성(기질의 한 차원)이 높은 아동에게 더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Colder 등(1997)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

동의 부적응 증상과의 관계가 아동의 두려움(기질의 한 차원)과 활동수준(기질의 한 차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여, 부모의 부실한 감독과 공격성과의 관계는 활동 수준이 낮은 아동보다는 높은 아동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거친 훈육과 공격성과의 관계는 두려움이 적은 아동보다는 많은 아동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문제행동이나 적응과 같은 아동 발달의 특정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예외적인 연구로 최영희(2004)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 유능감의 차이를 조사하였고, 연구 결과 자기 유능감의 4차원(즉, 인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 자아가치) 중 인지적 능력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으며, 이 결과는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의 관계에 있어 기질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천희영(199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렵다.

천희영(1993)은 만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능력에 있어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만 4세와 5세 아동의 경우,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 중 사회적 협동에서만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고, 사회적 능력 전체나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서는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한편 6세 아동의 경우,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은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연령별, 기질 유형별, 양육태도 유형별에 따라 연구대상 아동의 수가 다르고, 특히 기질 유형에서 소극적 조절형의 경우 사례수(n=4)가 너무 작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대부분 유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이후에서는 이들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예외적인 연구로 최정미(2002)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있어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및 이들 변인들의 관계가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는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부모양육태도

일반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이를 대신한 다른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박성연과 이숙(1990)의 양육행동 척도 중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를 통해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나.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유능감은 일반적으로 타인과 만족스런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본 연구에서는 왕정희(2001)가 개발한 사회적 능력 검사를 통해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다. 기질

기질이란 개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타고난 행동방식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를 이명숙(1994)이 번안하고 수정하여 만든 검사를 통해 얻은 점수를 나타낸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유능감

가.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사회적 유능감은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각 문화와 사회마다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사회나 문화에서 내재된 근본가치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닌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심혜숙·왕정희, 2001)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회적 유능감은 아동과 동료 혹은 성인 즉 다른 사람과의 생산적이고 상호 만족스런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으로 이런 능력에는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에 적절하게 기술이나 묘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생산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시키고, 목적이 달성될 때 아동에게 만족을 준다(O'Malley, 1977).

O'Malley는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접근 방법을 동물학적 접근 방법, 인성구조적 접근 방법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동물 행동학적 접근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이 다양한 조건 아래 생존을 위해 그 상황에 적당한 행동을 보이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즉 사회적 유능감을 형성, 발달해 나간다고 본다(O'Malley, 1977).

White(1960)는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주위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능력이라 하고 개인과 환경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김화란, 2001, 재인용). ‘social competence’는 우리 나라의 연구에서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능력(박범실, 1987), 사회적 역량(정영숙, 1992) 등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왔으나 본질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Zigler와 Trikett(1978)는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이 환경을 대하고 적응하는 능력으로 간주하고, 그 내용은 적절한 형식적 개념을 습득하는 능력,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는 능력, 성인이나 다른 유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적응 능력이라고 하였다(황혜순, 2008, 재인용). Attili(1990)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 자신의 단기적, 장기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이 각 발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를 최상으로 조정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유능감을 관계 수준에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관계적 관점을 제시하였다(이하경, 2003, 재인용).

둘째, 인성구조적 접근 방법은 사회적 유능감을 개인의 특질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O’ Malley, 1977),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개인의 인성 구조 중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를 보는 관점이다. 즉, 긍정적인 속성을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Schaefer(1961)는 긍정적 속성으로는 애정, 접근성, 외향성을, 부정적 속성으로는 적대감, 복종, 내향성, 회피성이라 보고, 긍정적 속성의 행동을 사회적 유능감으로 보았다. Kohn과 Roseman(1972)도 요인분석으로 인성 속성을 두 종류로 나누어 관심, 호기심, 주장적인 것을 긍정적 속성으로 보고 이러한 속성을 가진 아동을 사회적 유능감이 있다고 하였고, 위축, 관심부족, 반항, 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속성의 아동들은 사회적 유능감이 부족하다고 하였다(박미현, 2004, 재인용).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은 사회적 유능감을 인간상호 관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이라고 본다(O' Malley, 1977). 이와 같은 능력에는 타인과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 목록의 소유, 상황에 적절한 기술을 나타나게 해주는 개인 내적 자원의 소유가 포함된다(Weinstein, 1969).

이밖에도 학자들은 사회적 유능감의 개념과 정의의 측정적 차원을 밝히려 하였다. Asher(1983)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보고 세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관련성 차원으로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반응성 차원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시작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며, 셋째는 과정적 차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박귀엽, 2006, 재인용).

한편 최근 1900년대 이후로 사회적 유능감에 '적응'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행동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까지 포함하고 있다. Baumrind(1973)는 능력 있는 아동은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아동이라 생각하고 우수한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구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유능감을 사회 생활의 도구로 보았다. 그는 사회적 유능감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반응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력 등이라고 하였다(신영미, 2004,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으로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사회적 유능감의 부모 관련 변인

사회적 유능감의 유무는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성공적인 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고(황혜정·김경희, 1999), 사회적 유능감의 제 변인들(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출생순위, 형제구성,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역량,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가족구조, 가정환경, 부모애착 등)은 복합적으로 관련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상황에서 협동적 또는 반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발달을 설명하고 아동의 행위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줄 수 있다(이경희, 1995).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았다.

(1)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

부모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어린 자녀의 사회적 역량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Mondell과 Tyler(1981)는 부모의 문제해결과 자녀의 놀이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모에 비해 역량이 있는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즐거워하며, 온정적이고, 더 긍정적이고, 구조적인 지시를 하는 경향을 보여 다양한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부모는 자녀에게 더 독재적이고 업무에 흥미를 덜 느끼며, 온정적이지 못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암시를 거의 주지 않고 모델링이 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 부모의 역량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유치원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적 참여를 지적한 Krantz, Webb 및 Andrew(1984)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국내연구에서도 아동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역량에 대해

여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예측해 보려 한 정영숙(1992)은 아동의 또래 체제에 대하여 어머니가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아동이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적 역량을 학습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기술을 발달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력수준, 직업,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다. 이병림(1987)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능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정아(1990)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 요인 중 활동성이나 협조성과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최경순(1994)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아동의 지도력과 유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취업유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유영주(1971)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아동의 인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의 아동은 그들의 인성 특성에 있어서 활동성·안정성·사회성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고, 유신희(1986)도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이 딸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주어 비취업모의 여아들보다 긍정적인 적응상태를 나타내고 높은 성취동기를 갖고 있으나, 남아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회적 능력의 수준이 비취업모의 자녀보

다 특히 낮다고 하였다. 안현숙(2000) 또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대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게 나타나 유영주(1971)와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윤정혜(1990)와 최경순(199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며 자녀들의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는 사회 적응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조혜영, 2000).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한은규(2004)는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관한 참여도 중 생활지도영역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 중 과제지향성과 신체적 활동성, 부모에 대한 애정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가사활동 영역에 관한 참여도가 유아의 방해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는 아버지의 생활지도가 자녀의 사회적 능력(최한순, 1995)과 친사회적 행동(정현희, 최경순, 1997)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 외에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 전체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임덕수, 2008). 따라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자녀의 양육에 기여를 하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부모

의 자아 형성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김현미, 도현심, 2004). 문태형(2002)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 고학력일수록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였고, 문혁준(1999)은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원,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진숙과 한지현(2004)은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사회·신체·정서적 발달, 바람직한 행동, 자아개념, 사회적 유능성이 증진되고, 분노, 공격성, 불안이 감소된다고 하면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6) 애착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어머니에 대한 애착 안정성 정도와 이후의 사회성, 대인관계 문제 등과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부모와 아동 간 관계의 질적 측면인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배효심, 2007).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는 그 아이가 자라서 갖게 될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로, 1세까지 어머니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은 유아는 3세에 또래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 및 인지적 능력이 더 발달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어머니-자녀 애착 관계는 연령증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보이고, 생활 초기에 안정된 어머니-자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유아기에 사회적, 인지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경애,

1984). 이는 김숙령(1995), 노명희(1995), 이숙희와 김숙령(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 부모의 양육태도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다(Becker, 1964).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끼친다. 부모의 성장과정,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부모의 역할이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김근화, 2006).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하나의 문화양식이고,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서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Fisbein, 1975).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동양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원녕(1983)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성과 행동은 이러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고(한중혜, 1980),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인 행동이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에 대한 요구이다(지진미, 2003).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태도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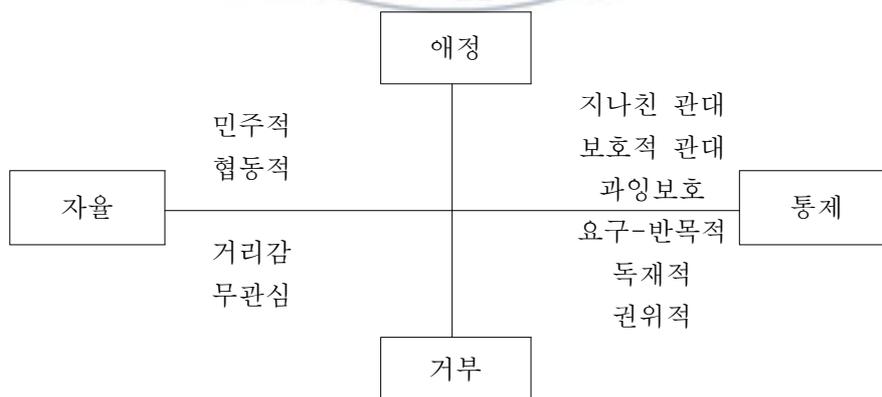
양육태도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Symonds(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으로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거부-수용(Rejection-Acceptance)형으로 구분하고,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지배 또는 복종하느냐에 따라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을 양극으로 하는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며, 다시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 복종은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다(윤선희, 2004, 재인용).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들은 예의는 바르나 수동적·의존적이며, 반항적·투쟁적이고, 자립성·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해 특유의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 상태로 머물게 될 위험이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지배적이고 공격적, 반항적, 비사교적, 억지, 의존성 등이 많이 나타난다.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별주기, 적대감정의

표출 및 조건 있는 애정을 주는 행동을 보인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애정의 요구, 주위를 끌려는 행동,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이상행동,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 수용형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책임감이 약하고 일의 마무리를 잘 못하는 등 사회적 성숙이 늦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서 교우관계가 활발하지 못하여 고립되기 쉽다(김실옥, 2000).

Symonds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으나,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에 힘입었으며 임상 사례에만 너무 의존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원녕, 1983).

Symonds(1949)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언급한데 비해, 정상적인 부모의 연구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애정-거부축과 자율-통제의 2개의 축으로 <그림 1>과 같이 분류하였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Schaefer의 양육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김근화, 2006, 재인용).



<그림 1>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첫째, 애정적-자유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자녀를 대한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지 않으며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게하고, 복종과 통제를 피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함으로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 되게 돕는다. 이와같은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슬하의 유아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창의적이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는 유아들도 집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성과 고집을 보일 때가 있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서 이러한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부모에 의한 통제는 신체적인 체벌에서부터 언어적인 통제 및 심리적인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영역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란 유아는 애정적-자유적인 양육태도에서 자란 유아보다 더욱 의존적이며, 사교성과 창의성이 뒤떨어진다.

셋째, 거부적-자유적 태도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방임형 양육태도로 거리감 조성, 무관심, 태만한 성격의 태도이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에게서 성장한 유아는 정서가 불안하며 소극적이고 자신의 행동 조절이 어려우며 공격적이어서 심하면 범죄를 초래한다.

넷째, 거부-통제적 태도는 자녀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정이 없고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독재형의 양육태도로서 자녀로 하여금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적대감정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 슬하의 아동은 불순종적이고 반항적이며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공격적,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

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학적이고 퇴행적이기도 하며 정신질환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Schaefer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여러 연구자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원녕(1983)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적대적, 거부적-수용적, 외향적-내향적, 의존적 조장-독립적 조장, 통제적-자율적, 긍정적-부정적, 의존성-독립성의 7개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박성연(1989)은 애정-적대, 통제-허용, 과보호-자율, 일관성 있는 규제-일관성 없는 규제, 적극적인 참여-비적극적인 참여, 합리적 지도-비합리적 지도, 성취-비성취로 구분하였다. 한종혜(1980)는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2개 차원으로, 이숙(1988)은 합리적인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로 분류하였고, 김재은(1987)은 한국가족의 심리를 분석한 연구에서 화목-불화, 허용-엄격, 친애-소원의 3차원으로 추출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행동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양육행동의 효과보다는 기질과의 상호작용 효과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모 양육행동 중 대표적인 두 가지 즉,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만을 선정하였다. 애정적 태도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중심적이며, 아동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등을 나타내는 정도로, 통제적 태도는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며 강요하는 태도 등을 나타내는 정도로 본다.

3. 기 질

가. 기질의 개념

기질이란 생후 초기부터 보이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개인차의 본질이다. 기질은 뚜렷이 정의되지 않은 채 사용되다가 약 20년 전부터 기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기질을 정의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기질에 대한 정의는 각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구성차원 또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명숙, 2008).

기질에 대한 정의는 기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성격심리학적 접근,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인차 연구의 접근, 그리고 유아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개별적 접근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Buss & Plomin, 1975).

첫째, 가장 전통적인 성격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차를 체액과 기질과의 관계로 설명하려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기질을 성격 구조의 부분으로 설명하는 체질적 측면과 유전성을 강조하였다(류현강, 2007). Buss와 Plomin(1975)은 기질은 유전적 성격특질로서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유전된 기질적 특질은 행동을 직접 결정하기보다 행동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보았다(Bates, 1987; Goldsmith & Gottesman, 1981). 그리고 이 접근법은 기질의 구성요소를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lity), 충동성(impulsiveness)의 네 가지 특성으로 보았으나 기질의 유전성에 관한 논란으로 충동성을 제외시켜 세 개의 특성을 기질 이론 중심으로 수정하였다. Allport(1961)는 기질이 한 개인의 특징이며, 주로 유전적인 정서의 본질 즉, 감정적 자극에의 민감성, 습관적인 반응의 일반적 강도와 속도, 일상적인 기분상태, 기분의 동요와 강도의 모든 특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이희선, 1994, 재인용). 성격심리학적 접근에서는 기질의 생리적, 유전적 요소가 강조되며, 기질을 성격의 일부분으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특성으로 보았다(김명숙, 2008).

둘째, 개인차 접근에서는 기질의 정의를 일차적 정서를 표현하는 경향성에서의 개인차로 본다. 대표적인 학자는 Goldsmith와 Campos(1982)로 이들은 심리생리학적 개념에 근거하여 정서 표현을 조직하는 구조로 기질을 보고 분노, 두려움, 즐거움, 흥미-접근, 운동적 활동 등 기질 차원에 기본 관심을 가졌다(김근화, 2006; 재인용). Rothbart와 Derryberry(1981)도 기질의 정서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기질을 개념적으로 통합된 위계적 체계로 정의하였다. 기질의 기본과정은 반응성과 자기 조절이며 기질은 이 기본과정에서의 체질적인 개인차라고 할 수 있다. 체질이라는 것은 개인의 지속적인 생물학적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전, 성숙,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반응성은 운동활동, 미소와 웃음, 두려움, 고통을 말하고 자기조절은 반응을 강화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주의조절과 자기조절, 접근과 회피 등이 포함된다(Bates, 1987).

셋째, 개별적 접근은 Thomas와 Ches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아의학적 접근이다. 이들은 기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으며, 행위의 동기(why)나 행위의 내용(what)이 아니라 성격의 양식적인 질(stylistic quality)로서 행위가 수행되는 일관된 패턴(how)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기질은 유아가 외부의 자극, 기회, 기대 또는 요구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질은 원인론이나 불변론 같은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Thomas & Chess, 1977).

기질의 구성 요인은 기질을 평가하는 측정도구의 하위구성차원에 기초하

여 기질의 조작적 정의에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질의 구성 차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공통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의 기질의 구성 차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omas와 Chess(1977)는 뉴욕 종단 연구(NYLS)를 통하여 기질을 활동 수준, 규칙성, 접근 회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정서성), 지구력, 주의산만성, 반응역 등 9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들은 기질을 9개 구성 영역 중 5개 즉 규칙성, 접근-회피,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질 차원들에 기초하여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 순한 기질(easy temperament), 느린 기질(slow-to-warm-up temperament)로 유형화 하였다(표미정, 1997, 재인용). 그러나 Thomas & Chess의 뉴욕종단연구에서 밝혀진 기질차원이 가장 포괄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세 가지 유형분류의 경우, 까다로운 집단(difficult children)의 비율이 10%, 순한 집단(easy children)의 비율이 40%, 느린 집단(slow-to-warm-up children)의 비율이 15%로 전체유아의 65%만이 세 유형에 분류됨으로서 나머지 35% 유아들의 기질 특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들의 9개 기질 구성 차원 중 5개의 차원만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나머지 4개 차원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셋째, 까다로운 기질이라는 부정적인 명칭과 함께 주목되는 것은 까다로운 기질의 개념이 까다로움이 나타나지 않는 기질차원에 대해서도 유아의 문제 행동을 예상토록 한다는 것 등이다(천희영, 1992).

Carey(1973)은 뉴욕 종단 연구와는 달리 면접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70문항의 3점 척도로 된 영아기질질문지(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ITQ)를 개발하였다. 그 후 Carey와 McDevitt(1978)는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95개 문항의 6점 척도로 된 개정된 영아기질질문지(Revised Infant Temperament Questionnaire: RITQ)를 제작하였다. 이 질문지의 기

질차원은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느린 기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유아가 있다고 하여 중간-높음(Intermediate-High)기질과, 중간-낮음(Intermediate-Low)기질을 첨가하여 다섯 집단으로 나누었다(김근화, 2006, 재인용).

Buss와 Plomin(1984)는 뉴욕종단연구의 규칙성과 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차는 기질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기질의 하위 영역을 활동성, 사회성, 감정성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20개 문항의 5점 척도인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개발하였다(표미정, 1997, 재인용). Rothbart와 Derrybarry(1981)는 기질을 자기규제와 반응성에서의 개인적 차이라고 규정하고 뉴욕종단연구의 아홉 개 기질영역에 반응성과 자기규제를 첨가하여 활동수준, 미소와 웃음, 공포, 규제에 대한 고통, 달랠 수 있는 정도, 지향 지속의 6개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은 84개 문항의 7점 척도인 IBQ(Infant Behavior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김명숙, 2008, 재인용). 최근 Windle과 Lerner(1986)가 DOTS-R (Revised Dimension of Temperament Survey)을 개발했는데 이 도구는 5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뉴욕종단연구의 9개 기질 범주를 토대로 10개의 기질 범주로 분류하였다(김명숙, 2008, 재인용).

천희영(1992)은 심리생물학적 특질을 외형적으로 반영하는 반응양식 및 그 반응양식을 스스로 조절하는 형태에서의 개인차라고 기질을 정의하고 뉴욕종단연구에 의한 기질의 유형화를 우리 나라 아동의 기질 유형화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겨 만 3세에서 만 7세 사이의 아동이 갖는 기질을 조절형, 소극적 조절형, 그리고 조절 결함형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상에서 각 학자들의 기질의 정의와 접근 방법에 따른 기질의 개념 및 구성 차원을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개인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타고난 행동방식으로, 관찰 가능하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 기질과 부모양육태도의 상호작용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기질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표미정, 1997). 따라서 아동의 개인 내적 특성인 기질과 환경으로서의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Buss와 Plomin(1975)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출생 초기부터 시작되며 아동기를 통해서 지속될 뿐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부모의 자녀 양육실제이며, 자녀 양육실제가 기질과 환경의 상호관계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표미정, 1997, 재인용). Thomas와 Chess(1977)는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 개념을 이용하여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화의 적합성이란 어느 연령이든지 환경의 요구와 기대가 개인의 능력, 동기, 기질과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기능의 발달이 가능하고 적응력이 높아지지만 부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바람직한 발달과 적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손혜련, 1996, 재인용). Gallagher(2002)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기질이 중재 또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조건모델(Conditional Model)을 제안하였다. 조건모델은 독립변인(양육행동)이 종속변인(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조건(기질)에 따라 다르다는 가정을 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데 아동의 기질 특성이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Bates(1985)는 아동의 기질 상의 특징이 후기 문제행동과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예측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까다로운 기질 군의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아동에 대해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고, 이것이 아동의 발달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성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더 사회적인 아동이 어머니로부터 언어 반응을 많이 받고, 통제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애, 1995, 재인용). Cameron(1977)은 부모의 거절, 인내심 부족, 비승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 태도가 아동의 기질 변화와 관계가 깊고 또한 문제 행동과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이미애, 1995, 재인용). Gordon(1983)은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행동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즉 까다로운 아동의 경우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으며 아동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쉽게 들어주었지만 순한 아동의 경우 통계적인 유의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는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모자 상호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원영미, 1990, 재인용).

국내 연구에서도 최영희(2004)는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아동 발달에 다른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양육행동이 다름을 알려주었다. 천희영(1993)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아동의 기질 유형-소극적 조절형, 조절형, 조절 결합형-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간의 상호작용은 4, 5세 집단 전체와 이 집단내 남아의 사회적 협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조절형의 아동은 사회적 능력에서 양육태도의 유형에 상관없이 사회적 능력이 높은 반면에 소극적 조절형과 조절 결합형은 어떤 양육태도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사

회적 능력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소극적 조절형은 온정형 양육태도에서는 세 기질 유형중 사회적 능력이 가장 낮지만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절 결합형인 아동은 온정형 양육태도에서는 가장 능력이 높지만 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사회적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김만, 1996).

이상의 연구는 기질과 양육태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기질과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가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 및 기질 간의 관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기본적으로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accoby & Martin, 1983; MacDonald & Parke, 1984). Hartup(1983)에 의하면, 어머니와의 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아동이 사회적·비사회적 환경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며, 다른 사회적 관계의 시초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 양육 행동의 역할을 경험적으로 검토해 왔다.

예를 들어, 김현미와 도현심(2004)은 5-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 반응성 및 합리적 지도라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대인적응성, 인기도/지도력 및 사회적 참여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사한 연구로 이진숙과 한지현(2004)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연구 결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 방식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계옥(2001)은 5-6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한계설정, 애정성 및 반응성이 유아의 사교성, 비협조성, 불안정성 및 유능성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예, 김재희, 박경란, 1998; 박범실, 1987; 박세밀, 2004; 손승희, 이은혜, 2004; 한미현, 2004; 한민경, 2003)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검토하여 이들 두 변인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연구와는 달리 손혜련(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예외적인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거는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지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변인간의 구체적인 관계 양상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박범실(1987)은 3세 이후의 취학 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행동의 다섯 가지 차원(즉, 적극적 참여, 규제, 반응성, 합리적 지도, 친밀성)과 사회적 능력의 다섯 가지 차원(즉,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비협조성, 협력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 활동성, 비협조성 및 협력성과, 규제는 사회적 활동성 및 협력성과 반응성은 과민성 및 비협조성과, 합리적 지도는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및 협력성과 마지막으로 친밀성은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비협조성 및 협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5-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김정아(1990)의 연구 결과는 박범실(1987)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적극적 참여는 비협조성과는 상관이 없었고, 규제는 모든 변인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과민성과 비협조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반응성은 사회적 활동성과만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합리적 지도는 사회적 활동성, 안정성 및 협조성과는 정적상관을 비협조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친밀성은 과민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또 하나의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대부분 유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이후에서는 이들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예외적인 연구로 최정미(2002)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이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있어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선행연구가 거의 대부분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검토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등한시 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자녀 발달에 있어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우정희와 이미숙 및 전춘애(200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렵다. 우정희 등은 유아기 아동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 및 애정적 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부적 양육태도는 부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검토한 연구가 아주 미미하여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최근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기질 특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질특성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표미정, 1997). 따라서 아동의 개인 내적 특성인 기질과 환경으로서의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기질과 부모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있어 기질에 따른 차이는 몇몇 학자들(Belsky, 1997; Bronfenbrenner & Morris, 1998; Gallagher, 2002; Thomas & Chess, 1977)에 의해 이론적 틀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아동 발달은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특성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적 특성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이들 두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때 더 잘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가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2개, 남구 소재 1개의 초등학교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6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582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92명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490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 490명 중 남학생이 257명(52.5%), 여학생이 233명(47.5%)이었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성연과 이숙(1990)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검사로 합리적인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로 된 7개의 하위 요인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늘 그렇다'(5), '그런 편이다'(4), '반반이다'(3),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거의 그렇지 않다'(1)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밝히기 보다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기질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양육태도의 7개 하위 변인 중 대표적인 변인으로 알려진 애정적 태도를 재는 9문항과 통제적 태도를 묻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척도 또한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애정적 태도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중심적이며, 아동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 등을 나타내는 정도를, 통제는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며 강요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척도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애정적 양육태도	9	1, 2, 3, 4, 5, 6, 7, 8, 9	부 .875
			모 .607
통제적 양육태도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부 .770
			모 .694
전체	18	1-18	

나. 사회적 유능감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박금옥(1998)이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능력 검사를 초등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보완한 왕정희(2001)의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5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검사로 사교성,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주도성 및 인기도의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 하위 척도 중 사회적 유능감 측정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인적응성을 재는 10문항, 사회적 참여를 재는 10문항, 인기도를 재는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 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유능감의 각 학위 척도별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인적응성: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
- ② 사회참여도: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놀이에 활발히 참여하는 내용
- ③ 인기도: 재미있는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과 같은 집단의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수단이 되는 능력에 대한 내용.

<표 2>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대인적응성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13
사회참여도	1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813
인기도	1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801
전체	30	11-30, 41-50	

다. 기질

아동의 차원별 기질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Windle과 Lerner(1986)의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Revised 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R)를 이명숙(1994)이 변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DOTS-R)는 미국의 뉴욕종단적 연구(NYSL)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기질 차원 척도(Dimensions of Temperament Survey: DOTS)(Lerner, Palermo, Spiro, & Nesselroade, 1982)를 Windle과 Lerner(1986)가 개정한 척도로서 아동 및 청소년이 기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이명숙(1994)의 척도는 일반적 활동 수준, 접근-철회성, 융통-경직성, 기분, 주의 집중성, 지속성 등 6개의 기질차원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동 자신에 의해 평정되고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 활동수준과 융통-경직성은 점수가 낮을수록, 그 외는 점수가 높을수록 순한 기질 특성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DOTS-R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개정판 기질차원 척도의 각 차원별 측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 활동수준(Activity Level-General):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운동적 행동 수준을 의미한다.
- ② 접근-철회성(Approach-Withdrawal): 자극을 향해 움직이거나 자극으로부터 피하는 정도
- ③ 융통-경직성(Flexibility-Rigidity):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용이성
- ④ 기분(Mood):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
- ⑤ 주의집중성(Distractability): 외적 자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지각적인 초점을 유지하는 정도
- ⑥ 지속성(Persistence): 한 가지 활동을 꾸준히 오래 기간 수행하는 정도

<표 3> 기질 차원 척도의 하위 척도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일반적 활동수준	6	2, 6, 10, 17*, 24, 34	.631
접근-철회성	6	7*, 11*, 22*, 25*, 27*, 32*	.821
융통-경직성	6	1, 12, 15, 16, 28, 30	.679
기분	7	3*, 13, 23*, 26, 29*, 31*, 33*	.777
주의집중성	5	4, 8*, 14, 18, 21	.834
지속성	3	5, 9, 19	.837
전체	34	1-34	

*표시문항은 역채점

3. 연구절차

가. 예비조사

실제 조사를 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 소요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자가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한 반을 대상으로 2008년 2월 11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인원은 남 15명, 여 15명 계 30명이었다. 예비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검사지에 대한 수정·보완은 하지 않았다.

나. 본조사

본 조사는 2008년 2월 13일에서 2월 20일까지 약 일 주일에 걸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자가 해당 학급 담임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담임교사의 주도하에 특활 및 재량 등의 수업 시간에 조사가 실시되었고,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별도의 유의사항과 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검사 시간은 30분 정도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연구대상을 통해 수집된 자료(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기질,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는 주어진 연구문제에 따라 SPSSWIN(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부와 모의 양육태도 점수 각각에서 애정 점수와 통제 점수를 비교한 다음, 보다 높은 점수에 따라 아동을 애정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 두 집단간 사회적 유능감 하위영역별로 평균점수간 차이검증(independent two-samples t-Test)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2>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는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아동의 6개 각 기질별로 원점수 분포를 산출하여 상위 및 하위 33% 내외의 점수범위에 속하는 사례를 추출하여 각각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부(모)의 양육태도(2) × 6개의 각 기질수준에 따른 집단(2)에 따라 사회적 유능감 하위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에서 유의성은 $\alpha = .05$ 의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구결과

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연구문제 1>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두 유형 집단(애정, 통제)을 구별하고 이에 따른 두 집단간 사회적 유능감 하위영역별 평균점수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두 집단간 사회적 유능감 평균차 검증

	사회적 유능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모	대인적응성	애정 집단	407	27.36	5.18	2.32	.022	
		통제 집단	72	25.97	4.57			
	사회참여도	애정 집단	407	28.04	4.94	2.30	.022	
		통제 집단	72	26.60	4.89			
	인기도	애정 집단	407	26.46	4.97	2.10	.036	
		통제 집단	72	25.13	5.11			
부	대인적응성	애정 집단	388	27.58	5.00	3.92	.000	
		통제 집단	86	25.24	5.00			
	사회참여도	애정 집단	388	28.28	4.89	4.10	.000	
		통제 집단	86	25.91	4.73			
		인기도	애정 집단	388	26.70	4.83	3.84	.000
			통제 집단	86	24.47	5.13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와 부 모두에서 애정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사회적 유능감 하위영역 모두에서 평균점수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p < .05$ 혹은 $p < .001$),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형으로 지각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그리고 인기도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의 아동의 기질에 따른 차이

<연구문제 2>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는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2)과 아동의 6개 기질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유능감 점수 각각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양육태도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유능감 하위영역별로 분석결과를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 제시에 앞서 6개 기질 수준에 따른 상·하위 집단의 대인 적응성 점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5>와 같다.

<표 5> 아동의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 점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인	독립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대인 적응성	활동수준	상위 집단	163	26.80	5.23
		하위 집단	188	27.46	5.14
	집근-철회성	상위 집단	172	24.21	4.49
		하위 집단	183	29.76	4.57
	융통-경직성	상위 집단	164	28.10	5.61
		하위 집단	205	26.16	4.86
	기분	상위 집단	177	24.81	4.84
		하위 집단	177	29.89	4.56
	주의집중성	상위 집단	183	28.79	4.61
		하위 집단	147	26.10	5.56
	지속성	상위 집단	160	28.80	5.13
		하위 집단	162	25.28	4.94

(1) 양육태도 × 기질수준이 대인적응성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모, 부의 순서대로 양육태도 ×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 <표 7>과 같다.

<표 6> 모-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의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모-양육태도	56.564	1	56.564	2.074	.151
활동수준	29.839	1	29.839	1.094	.296
모-방식*활동수준	5.620E-04	1	5.620E-04	.000	.996
오차	9191.498	337	27.274		
모-양육태도	5.636	1	5.636	.268	.605
접근-철회성	1396.243	1	1396.243	66.449	.000
모-방식*접근-철회성	2.536	1	2.536	.121	.728
오차	7207.188	343	21.012		
모-양육태도	201.122	1	201.122	7.416	.007
융통-경직성	37.190	1	37.190	1.371	.242
모-방식*융통-경직성	63.007	1	63.007	2.323	.128
오차	9654.793	356	27.120		
모-양육태도	77.385	1	77.385	3.470	.063
기분	1197.116	1	1197.116	53.680	.000
모-방식*기분	1.987	1	1.987	.089	.765
오차	7671.521	344	22.301		
모-양육태도	49.542	1	49.542	1.908	.168
주의집중성	197.115	1	197.115	7.590	.006
모-방식*주의집중성	17.273	1	17.273	.665	.415
오차	8258.136	318	25.969		
모-양육태도	60.539	1	60.539	2.357	.126
지속성	353.377	1	353.377	13.758	.000
모-방식*지속성	21.049	1	21.049	.819	.366
오차	7988.231	311	25.686		

<표 7> 부-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대인적응성의 이원분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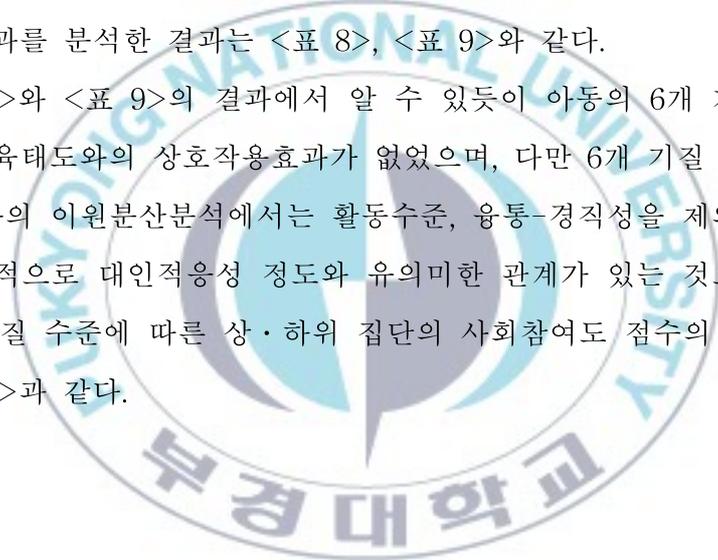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부-양육태도	199.924	1	199.924	7.617	.006
활동수준	97.152	1	97.152	3.701	.055
모-방식*활동수준	75.541	1	75.541	2.878	.091
오차	8845.608	337	26.248		
부-양육태도	145.116	1	145.116	7.252	.007
접근-철회성	1581.190	1	1581.190	79.017	.000
모-방식*접근-철회성	.152	1	.152	.008	.931
오차	6763.629	338	20.011		
부-양육태도	438.846	1	438.846	17.006	.000
융통-경직성	66.577	1	66.577	2.580	.109
모-방식*융통-경직성	70.070	1	70.070	2.715	.100
오차	9057.754	351	25.806		
부-양육태도	173.691	1	173.691	8.114	.005
기분	1153.275	1	1153.275	53.876	.000
모-방식*기분	9.055	1	9.055	.423	.516
오차	7235.286	338	21.406		
부-양육태도	404.749	1	404.749	16.470	.000
주의집중성	298.676	1	298.676	12.154	.001
모-방식*주의집중성	.124	1	.124	.005	.944
오차	7741.048	315	24.575		
부-양육태도	209.023	1	209.023	8.293	.004
지속성	430.852	1	430.852	17.094	.000
모-방식*지속성	3.293	1	3.293	.131	.718
오차	7738.062	307	25.205		

<표 6>와 <표 7>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6개 기질 모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다만 6개 기질 중 모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접근-철회성, 기분, 지속성이, 그리고 부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활동수준, 융통-경직성을 제외한 4개 기질이 대인적응성 정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태도 × 기질수준이 사회참여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모, 부의 순서대로 양육태도 ×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와 <표 9>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6개 기질 모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다만 6개 기질 중 모, 부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활동수준, 융통-경직성을 제외한 4개 기질이 독립적으로 대인적응성 정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기질 수준에 따른 상·하위 집단의 사회참여도 점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표 8> 모-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모-양육태도	46.993	1	46.993	1.862	.173
활동수준	46.478	1	46.478	1.841	.176
모-방식*활동수준	5.795	1	5.795	.230	.632
오차	8505.623	337	25.239		
모-양육태도	10.695	1	10.695	.571	.450
접근-절희성	1462.806	1	1462.806	78.097	.000
모-방식*접근-절희성	4.489	1	4.489	.240	.625
오차	6424.567	343	18.731		
모-양육태도	184.918	1	184.918	7.426	.007
융통-경직성	148.073	1	148.073	5.947	.015
모-방식*융통-경직성	6.017	1	6.017	.242	.623
오차	8864.600	356	24.901		
모-양육태도	50.109	1	50.109	2.352	.126
기분	1396.054	1	1396.054	65.532	.000
모-방식*기분	3.094	1	3.094	.145	.703
오차	7328.395	344	21.303		
모-양육태도	52.098	1	52.098	2.201	.139
주의집중성	245.843	1	245.843	10.388	.001
모-방식*주의집중성	.606	1	.606	.026	.873
오차	7525.481	318	23.665		
모-양육태도	97.456	1	97.456	4.324	.038
지속성	544.689	1	544.689	24.167	.000
모-방식*지속성	1.825	1	1.825	.081	.776
오차	7009.617	311	22.539		

<표 9> 부-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부-양육태도	170.109	1	170.109	6.873	.009
활동수준	71.226	1	71.226	2.878	.091
모-방식*활동수준	26.461	1	26.461	1.069	.302
오차	8341.251	337	24.751		
부-양육태도	153.664	1	153.664	8.492	.004
접근-철회성	1487.831	1	1487.831	82.227	.000
모-방식*접근-철회성	3.066	1	3.066	.169	.681
오차	6115.857	338	18.094		
부-양육태도	421.081	1	421.081	17.573	.000
융통-경직성	118.260	1	118.260	4.935	.027
모-방식*융통-경직성	60.683	1	60.683	2.533	.112
오차	8410.526	351	23.962		
부-양육태도	184.647	1	184.647	8.957	.003
기분	1240.861	1	1240.861	60.190	.000
모-방식*기분	3.637	1	3.637	.176	.675
오차	6968.104	338	20.616		
부-양육태도	407.982	1	407.982	18.192	.000
주의집중성	342.890	1	342.890	15.290	.000
모-방식*주의집중성	12.243	1	12.243	.546	.461
오차	7064.160	315	22.426		
부-양육태도	177.954	1	177.954	7.948	.005
지속성	660.087	1	660.087	29.481	.000
모-방식*지속성	3.495	1	3.495	.156	.693
오차	6873.854	307	22.390		

<표 10> 아동의 기질수준에 따른 사회참여도 점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인	독립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사회 참여도	활동수준	상위 집단	163	27.44	5.02
		하위 집단	188	28.15	4.98
	접근-철회성	상위 집단	172	24.88	4.15
		하위 집단	183	30.49	4.42
	융통-경직성	상위 집단	164	29.08	5.59
		하위 집단	205	26.76	4.46
	기분	상위 집단	177	25.40	4.71
		하위 집단	177	30.58	4.48
	주의집중성	상위 집단	183	29.29	4.50
		하위 집단	147	26.73	5.23
	지속성	상위 집단	160	29.83	4.72
		하위 집단	162	25.93	4.76

(3) 양육태도 × 기질수준이 인기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모, 부의 순서대로 양육태도 ×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 <표 12>와 같다.

<표 11> 모-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의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모-양육태도	66.959	1	66.959	2.572	.110
활동수준	33.307	1	33.307	1.279	.259
모-방식*활동수준	.376	1	.376	.014	.904
오차	8773.912	337	26.035		
모-양육태도	4.004	1	4.004	.209	.648
접근-철회성	1645.018	1	1645.018	85.985	.000
모-방식*접근-철회성	31.395	1	31.395	1.641	.201
오차	6562.112	343	19.132		
모-양육태도	222.752	1	222.752	8.514	.004
융통-경직성	2.009	1	2.009	.077	.782
모-방식*융통-경직성	56.272	1	56.272	2.151	.143
오차	9314.322	356	26.164		
모-양육태도	109.599	1	109.599	4.895	.028
기분	1113.597	1	1113.597	49.737	.000
모-방식*기분	5.068	1	5.068	.226	.635
오차	7702.075	344	22.390		
모-양육태도	14.840	1	14.840	.594	.441
주의집중성	432.801	1	432.801	17.327	.000
모-방식*주의집중성	6.284E-02	1	6.284E-02	.003	.960
오차	7943.283	318	24.979		
모-양육태도	4.452	1	4.452	.184	.668
지속성	482.558	1	482.558	19.939	.000
모-방식*지속성	8.708E-02	1	8.708E-02	.004	.952
오차	7526.633	311	24.201		

<표 12> 부-양육태도 및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의 이원분산분석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부-양육태도	202.104	1	202.104	8.180	.005
활동수준	90.136	1	90.136	3.648	.057
모-방식*활동수준	51.470	1	51.470	2.083	.150
오차	8326.464	337	24.708		
부-양육태도	169.386	1	169.386	9.358	.002
접근-철회성	1495.934	1	1495.934	82.650	.000
모-방식*접근-철회성	.514	1	.514	.028	.866
오차	6117.710	338	18.100		
부-양육태도	433.326	1	433.326	17.349	.000
융통-경직성	11.356	1	11.356	.455	.501
모-방식*융통-경직성	47.879	1	47.879	1.917	.167
오차	8767.072	351	24.977		
부-양육태도	210.189	1	210.189	9.817	.002
기분	863.652	1	863.652	40.338	.000
모-방식*기분	14.444	1	14.444	.675	.412
오차	7236.701	338	21.410		
부-양육태도	325.824	1	325.824	13.947	.000
주의집중성	646.431	1	646.431	27.671	.000
모-방식*주의집중성	49.987	1	49.987	2.140	.145
오차	7358.795	315	23.361		
부-양육태도	140.636	1	140.636	5.988	.015
지속성	624.007	1	624.007	26.570	.000
모-방식*지속성	32.359	1	32.359	1.378	.241
오차	7209.999	307	23.485		

<표 11>과 <표 1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6개 기질 모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다만 6개 기질 중 모, 부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활동수준, 융통-경직성을 제외한 4개 기질이 독립적으로 대인적응성 정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기질 수준에 따른 상·하위 집단의 인기도 점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3>과 같다.

<표 13> 아동의 기질수준에 따른 인기도 점수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인	독립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인기도	활동수준	상위 집단	163	26.70	4.83
		하위 집단	188	24.47	5.13
	접근-철회성	상위 집단	172	25.91	5.03
		하위 집단	183	26.59	5.10
	융통-경직성	상위 집단	164	23.34	4.07
		하위 집단	205	28.87	4.61
	기분	상위 집단	177	26.87	5.67
		하위 집단	177	25.68	4.63
	주의집중성	상위 집단	183	24.23	4.50
		하위 집단	147	28.81	4.94
	지속성	상위 집단	160	27.90	4.70
		하위 집단	162	24.66	5.25

2.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관계에서 기질에 따른 차이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는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그리고 인기도 점수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 대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고, 아동중심적이며, 아동의 요구에 대해 민감할수록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협조적이고, 호의적으로 대하며, 또래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우정희와 이미숙 및 전춘애, 2003; 김재희와 박경란, 1998; 최정미, 2002; 손승희와 이은혜, 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예를 들어, 김재희와 박경란(1998)은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연구에서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지도력, 과제지향성, 신체적

활동성,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보다 애정적일 때 자녀들은 더욱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을 행함을 시사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대부분 유아로 한정되어 있는데 최정미(2002)는 예외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얻어 애정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지지해 주었다. 본 연구 결과도 이와 일관되어 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서도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부모 양육태도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이지만, 최근들어 아버지 양육행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우정희와 이미숙 및 전춘애(2003)는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태도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애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유아는 부모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며, 이것이 일반화되어 남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어 우정희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검토한 연

구가 아주 미미한 실정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지해주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 변인 중 통제적 태도의 사례수가 적어 이것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나.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 기질에 따른 차이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의 아동의 기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6개 기질 모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다만 6개의 기질 중 모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접근-철회성, 기분, 지속성이, 그리고 부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활동수준, 융통-경직성을 제외한 4개 기질이 대인적응성 정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있어 아동의 기질에 상관없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원영미(1990)의 연구에서 기질과 양육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한 천희영(1993)의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왜냐하면 천희영(1993)은 만 4, 5, 6세 유아를 대상으로하여 만 4세와 5세 아동의 경우,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 중 사회적 협동에서만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고, 6세 아동의 경우 기질 유형과 양육태도 유형은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있어 어느 연령이든지 환경의 요구와

기대가 개인의 능력, 동기, 기질과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기능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Thomas와 Chess(1977)의 조화의 적합성 개념을 지지하지 못하며, 아동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이 아동 발달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최영희(2004)의 연구결과와도 상반된다.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에 있어 기질에 따른 차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질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천희영(1993)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달 단계를 달리하는 대상을 표집하여 이 가설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 있어 기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는 아동의 기질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2개, 남구 소재 1개의 초등학교 19학급 6학년이었으며,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남학생 257명, 여학생 233명, 전체 49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부모양육태도 척도(박성연, 이숙, 1990), 사회적 유능감 척도(왕정희, 2001), 기질 척도(이명숙, 1994)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량, 평균점수 차이검증, 이원분산분석을 SPSSWIN(ver.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인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에서의 아동의 기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6개 기질 모두는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며, 다만 6개의 기질 중 모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접근-철회성, 기분, 지속성이, 부의 양육태도와의 이원분산분석에서는 접근-철회성, 기분, 지속성, 주의집중성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변인인 대인적응성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은 관계가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대인적응성, 사회참여도 그리고 인기도가 높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에서의 아동의 기질에 따른 차이는 없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양육태도의 사례 수에 비해 통제적 양육태도의 사례 수가 매우 적어 본 연구를 일반화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넓히고 애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사례 수를 같게 한 후속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을 애정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만으로 제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하위 변인을 추가하여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변인을 대인 적응성, 사회참여도, 인기도 세 가지로 제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사교성, 주도성 등 다양한 하위 변인을 추가하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경애(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화(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 만(1996).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대한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사회적 경험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화(1997).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숙령(1995). 유아의 애착상태와 유치원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들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5(1), 21-38.
- 김실옥(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린이집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87).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희, 박경란(1998). 취업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5, 295-319.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화란(2001). 부모의 사회적 유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

- 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명희(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현강(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박귀엽(2006).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사회적 증진활동이 또래수용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금옥(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 학습방안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현(2004). 아동의 정서성 및 자기조절과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범실(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새밀(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89).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개발에 관한 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51-165.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주희(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효심(2007).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손혜련(199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모자간 애착, 유아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미(2004). 형제 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초등학교 3,4학년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숙,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1), 163-175.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숙(2000).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교육. 9(1), 93-102.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2), 91-101.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1971).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9(2), 515-530.
- 유신희(1986).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수(1994). 유아의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기술 훈련이 사회적 능력에

-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선희(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혜(1990).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5). 유아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유아의 기질, 가정양육환경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애(1995).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부조화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희, 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인성(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월녕(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숙, 한지현(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하경(2003).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

- 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1994).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및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5(2), 117-127.
- 이희영(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관계. 동북아문화연구, 16, 371-391.
- 임덕수(2008).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 다중지능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1992). 가족환경, 어머니의 사회심리적 역량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1), 27-55.
- 정현희, 최경순(1997).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 9-23.
- 조혜영(2000). 아버지의 양육태도, 교육수준, 직업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진미(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희영(1992).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 최경순(1994).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논문집. 38(1), 263-291.
- 최영희(1994). 기질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합치모델 검증연구(II). 아동학회지. 15(1), 145-157.
- 최영희(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자기-유능감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4), 17-32.

- 최정미(200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205-216.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미정(1997).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2004).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민경(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규(2004).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금옥(2003). 어머니 양육 아동과 타인 양육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황혜정, 김경희(1999).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유아학회지, 20(3), 139-152.
- 황혜순(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s

- and future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54, 1427-1434.
- Attili, G. (1990). Successful and disconfirmed children in the peer group: Indices of social competence within an evolutionary perspective. *Human Development*, 33, 238-249.
- Baldwin, A. L. (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pp.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ates, J. E., Lee, C. L.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 Bates, J. E. (1987). Temperament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pp. 1101-1149). NY: Wiley.
- Belsky, J. (1997). Variation in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 : An evolutionary argument. *Psychological Inquiry*, 8(3), 230-23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and L. W. Hoffman (Eds.),*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pp. 169-20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ronfenbrenner, U., & Morris, P.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W. Damon and R. M. Lern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1. Theoret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pp. 993-1028). NY: Wiley.

- Buss, A. H.,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Wiley.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meron, J. R. (1977). Parental treatment, Children's temperament, and the Risk of childhood behavioral problems: 1.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in children's temperament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7*, 568-576.
- Carey, W. B. (1973). Measurement of infant temperament in pediatric practice. In J. C. Westman(Ed.),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pp. 298-304). NY: Wiley.
- Carey, W. B. & McDevitt, S. C. (1978). Stability and changes in individual temperament diagnosi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child psychiatry*, *17*, 331-337.
- Colder, C. R., Lockman, J. E., & Wells, K. C. (1997).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fear and activity level on relations between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hood symptomat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251-263.
- Fisbein, M. (1975). I, belief,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iey.
- Gallagher, K. C. (2002). Does child temperament moderate the influence of parenting on adjustment? *Developmental Review*, *22*, 623-643.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 (Eds.),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pp. 161-193). New York: Plenum.
- Goldsmith, H. H., & Gottesman, I. I. (1981). Origins of variation in behavioral style: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young twins. *Child Development, 52*, 91-103.
- Gordon, B. N. (1983). Maternal perception of child temperament and observed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3*, 153-167.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a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 167-230. New York: Wiley.
- Lengua, L. J., Wolchik, S. A., Sandler, I. N., & West, S. G. (2000).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ing and temperament in predicting adjustment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232-244.
- Krantz, M., Webb, S. D., and Andrews, D. (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parental social compete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118*, 51-56.
- Kohn, M., & Roseman, B. 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Factor dimension,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6*(3), 430-444.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Parent-child interaction. In P. H. Mussen(Series Ed.) and E. M. Hetherington(Vol. Ed.)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p.1-101). New york-Wiley.
- MacDonal, K. and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6-1277.
- Mondell, S., and Tyler, F, B. (1981). Parea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98.
- O'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1)*, 29-44.
-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L.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 37-8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chaefer, E. S. (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chaefer, E. S. (1961).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 345-346.
- Symond,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Y.: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Brunner.Mazel.
- Watson, G, A. (1957). Some personality differences in child related to

strict or permissive parental discipline, *Journal of Psychology* 44, 227-249.

- Weinstein, E. A. (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 A. Goldstine(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pp. 753-77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White, R. (1960). *Competence and the psychosexual states of development*. In M. R. Jones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8).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indle, M., & Lerner, R. M. (1986). The "goodness-of-fit" model of temperament-context relations: Interaction or correlation? In J. V. Lerner & R. M. Lerner(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s and children*(pp.109-119). SanFransisco: Jossey-Bass
- Zigler, E., & Trikett, P. K. (1978). I. Q., social competence, and evaluation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33(9), 778-798.

< 부록 > 질 문 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특성 및 부모와의 관계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답한 것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을 돕는 방법을 찾는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설문지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빠진 답이 있는 질문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써 답 해 주신 질문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작성 해 주십시오.

♣ 설문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황경혜

지도교수: 이희영

연락처: 019-551-4916

1. 나의 성별은? () ①남자 ②여자
2. 나의 학년은? () ① 5학년 ② 6학년

3.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⑥ 모름
4.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이상 ⑥ 모름
5.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합니까? ()
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생활한다.
② 어머니나 아버지 하고만 생활한다.
③ 부모가 계시지 않다.



질 문	아버지				어머니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1.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2. 나를 껴안아주고 다독거리 주신다.	1	2	3	4	1	2	3	4
3. 나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	1	2	3	4	1	2	3	4
4.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5.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6. 나를 부드럽게 대하신다.	1	2	3	4	1	2	3	4
7. 나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 하신다.	1	2	3	4	1	2	3	4
8. 나에게 내가 어머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해 주신다.	1	2	3	4	1	2	3	4
9. 새로운 일에 대해 나와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1	2	3	4
10. 내가 잘못하면 매로 때리신다.	1	2	3	4	1	2	3	4
11. 화가 날 때 나에게 화풀이를 하신다.	1	2	3	4	1	2	3	4
12. 내가 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벌을 주신다.	1	2	3	4	1	2	3	4
13. 내가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내신다.	1	2	3	4	1	2	3	4

14. 나의 좋지 않은 성격에 대해 비난의 말을 하신다.	1	2	3	4	1	2	3	4
15. 나에게 '빨리 자라' 학교에 늦겠다' 등의 잔소리를 하신다.	1	2	3	4	1	2	3	4
16. 어머니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신다.	1	2	3	4	1	2	3	4
17. 나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나쁜 점만 들추어내신다.	1	2	3	4	1	2	3	4
18. 내가 말을 붙이면 귀찮아하신다.	1	2	3	4	1	2	3	4



들	아래에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행동이 적혀있습니다. 각 행동을 읽어보고 그것이 여러분이 요즈음 하는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생각해서 자기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 하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집에 새로 들어온 물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3	4
2.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1	2	3	4
3. 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곧잘 웃는다.	1	2	3	4
4. 나는 일단 어떤 과제에 몰입하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1	2	3	4
5. 나는 하던 일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한다.	1	2	3	4
6. 나는 많이 움직인다.	1	2	3	4
7. 나는 어디를 가든 내 집처럼 편하게 있다.	1	2	3	4
8.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긴다.	1	2	3	4
9. 나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한다.	1	2	3	4
10. 나는 내가 한 장소에 오랫동안 있어야 할 때 무척 안절부절못한다.	1	2	3	4
11. 나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면 대개 그쪽으로 접근한다.	1	2	3	4
12. 나는 새로운 일과 시간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1	2	3	4
13. 나는 잘 웃지 않는다.	1	2	3	4
14. 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일이 일어나도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1	2	3	4
15. 나는 낯설거나 새로운 것을 보면 거부반응부터 보인다.	1	2	3	4
16. 나는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초조해 진다.	1	2	3	4

17.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다.	1	2	3	4
18. 나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내가 하던 일에 쏠려있던 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다.	1	2	3	4
19. 나는 어떤 일을 한 번 잡으면 계속해서 한다.	1	2	3	4
20. 나는 비록 조용하게 있어야할 경우라도 몇 분만 지나면 안절부절 못한다.	1	2	3	4
21. 나는 여간해서 주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	2	3	4
22.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편이다.	1	2	3	4
23. 나는 자주 미소 짓는다.	1	2	3	4
24. 나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편이다.	1	2	3	4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5. 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빨리 익숙해진다.	1	2	3	4
26. 나는 자주 웃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27. 나는 새로운 상황에 잘 접근한다.	1	2	3	4
28. 나는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오래 걸린다.	1	2	3	4
29. 나는 대체로 명랑한 편이다.	1	2	3	4
30. 나는 일상적인 습관이 바뀌는 것을 싫어한다.	1	2	3	4
31. 나는 하루에 여러 번 웃는다.	1	2	3	4
32. 나는 새로운 것을 대하면 우선 그 쪽으로 고개부터 돌린다.	1	2	3	4
33.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	1	2	3	4
34. 나는 결코 한 장소에 오래 있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p>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이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낌과 어느 정도 같은지를 생각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O표를 해 주세요.</p>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1	2	3	4
2. 나는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1	2	3	4
3. 나는 친구를 쉽게 잘 사귀다.	1	2	3	4
4. 나는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잘 사귀다.	1	2	3	4
5.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수줍어하지 않는다.	1	2	3	4
6. 나는 새로운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1	2	3	4
7. 나는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8. 나는 이웃 사람들과도 잘 사귀다.	1	2	3	4
9. 나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진다.	1	2	3	4
10. 나는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건넨다.	1	2	3	4
11. 나는 친구들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1	2	3	4
12. 나는 친구들에게 양보를 잘한다.	1	2	3	4
1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다투지 않고 잘 논다.	1	2	3	4
14. 나는 기분이 나빠도 친구에게 신경질을 부리지 않는다.	1	2	3	4
15. 나는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16. 나는 나의 입장보다는 친구의 입장을 더 생각해준다.	1	2	3	4
17. 나는 주위 사람들이 충고해 주면 고맙게 생각한다.	1	2	3	4
18. 나는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다.	1	2	3	4
19. 나는 친구의 기분을 잘 파악한다.	1	2	3	4
20. 나는 친구들과 심한 말다툼은 하지 않는다.	1	2	3	4
21. 나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2.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3. 나는 여러 명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4. 나는 친구를 좋아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한다.	1	2	3	4
25.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1	2	3	4
26. 나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할 때가 자주 있다.	1	2	3	4
27. 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28. 나는 시간이 나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1	2	3	4
29. 나는 친구들과의 게임에 잘 참여한다.	1	2	3	4
30. 나는 친구들이 하는 운동이나 놀이에 잘 참여한다.	1	2	3	4
31. 나는 친구들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	1	2	3	4
질 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32.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잘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놀이를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4. 친구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른다.	1	2	3	4
35. 친구들이 내 의견에 반대하면 잘 설득시킨다.	1	2	3	4
36. 나는 자신 있게 새로운 활동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	1	2	3	4
37. 나는 게임을 할 때 놀이를 잘 진행해 나간다.	1	2	3	4
38. 나는 어려운 일도 내 나름대로 잘 처리한다.	1	2	3	4
39. 나는 새로운 일을 자신 있게 시도한다.	1	2	3	4
40. 나는 모임에서 진행을 자주 맡는다.	1	2	3	4
41. 나는 친구들 모임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있다.	1	2	3	4
42. 나는 소풍가면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43. 나는 학급에서 친구들을 골잘 웃긴다.	1	2	3	4

44. 친구들이 나를 잘 따른다.	1	2	3	4
45.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살려서 친구들이 좋아한다.	1	2	3	4
4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1	2	3	4
47.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기가 있다.	1	2	3	4
48. 나는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	1	2	3	4
49.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인기가 있는 편이다.	1	2	3	4
50. 친구들은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	1	2	3	4

